

三國의 曾坪地域 進出과 二城山城 *

양 기 석 **

-
- I. 머리말
 - II. 百濟의 증평지역 진출과 이성산성 축조
 - III. 高句麗의 남진과 道西縣 設置
 - IV. 신라의 증평지역 지배
 - V. 맺음말
-

I. 머리말

二城山城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 74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성산(259.1m) 정상에 축조된 토축산성으로 현재 충청북도기념물 제138호(2006. 12 지정)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성산성이 위치한 증평지역은 북쪽으로는 두타산 연봉의 곡부를 통하여 진천·천안·안성 등의 육로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백마령을 넘어 한강수계인 달천 상류의 괴산·음성·충주로 연결되며, 서쪽으로는 금강수계인 미호천 유역 상류지역에 해당하여 그 주변에는 미호평야가 펼쳐져 있어 청주·조치원·공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미원·보은·상주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1)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중부 내륙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성산성은 증평지역이 갖는 이러한 교통 군사적인 배경 하에서 축조 운영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성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97년 충청전문대학 박물관에서 정밀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이성산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¹⁾한 이래 200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원문화재연구원이 4차례에 걸쳐 이성산성 남성 수문지와 성벽 축조, 성내 여러 주거시설과 북성 성 내부의 추정 남문지 및 석축 배수로, 원삼국시대~백제시대의 수혈주거지 4기, 구상유구 3기를 조사하였다.²⁾ 이러한 정밀학술조사를 통해 증평 이성산성은 일반적인 산성에 비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이성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약 700m 거리를 두고 남성과 북성이 각각 독립된 형태로 다중구조를 하고 있는 점이다. 南城은 산의 정상부를 에워싼 테피식산성과 계곡을 포함하여 가지능선을 연결하는 포곡식산성이 복합된 산성이며 전체적으로 부정형을 이루고 있다. 내성(741m)과 외성(1,052m)을 갖춘 2중 구조로서 전체 둘레가 1,411m에 달한다. 北城은 이중으로 된 테피식산성으로 반월형의 내성(219m)과 “ㄷ”자형의 외성(310m), 그리고 외성에 덧붙여 2개의 子城(10.8m, 98.8m)을 가진 4중 구조를 하고 있어 내외성의 공유벽(100m)을 포함하여 전체 둘레는 429m이

1) 충청전문대학박물관·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증평 이성산성』, 1997, 1~259쪽.

2) (재)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1차 조사는 2009년 6월 17일~8월 15일에 남성 수문지에 대한 발굴조사였고, 2011년 2차와 3차 조사를 통해 성벽의 축조방법과 성내 주거시설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재)중원문화재연구원·증평군, 『증평 이성산성 I -남성 남수문지-, 2011 및 『증평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2011. 5에 수록되어 있다. 2011년 10월 28일에 열린 제24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백영중·조인규, 「증평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 성과』, 2011, 117~124쪽이 발표되었다. 4차 발굴조사는 2012년 6월 25일~10월 29일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증평 이성산성 북성(4차) 발굴조사 학술자문 회의자료」, 2012. 10. 19에 수록되어 있다.

나 된다. 조사 결과 이성산성은 다른 삼국시대의 산성에 비해 규모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할 뿐 아니라 남성과 북성이 각각 다중구조를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유사판축법과 부엽공법이 적용된 판축공법 이전 단계의 축조공법으로 축성된 점, 그리고 남성내에서 출토된 토기가 대부분 4세기에 한정된 것으로 한성백제의 양식이 아닌 지역 양식이라는 점 등에서 백제권역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른 4세기의 성곽임이 밝혀져 백제 성곽의 시원과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처럼 증평 이성산성이 삼국시대에 중요한 산성으로 기능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떤 세력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또한 어느 시기까지 기능을 유지해 왔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관련 문헌 기록과 답사를 통해 이성산성이 고구려 때 道西縣의 治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³⁾ 삼국이 중부 내륙지역에서 각축을 벌였던 『三國史記』의 道薩城으로 비정하는 견해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성산성에 대한 유적정비계획 및 종합보존계획이 마련되고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정밀학술조사와 관련된 학술회의⁵⁾를 열면서 그 학술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

3) 민덕식은 고구려의 도서현의 '도서'를 두타산성의 '두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그 범위를 이성산성을 포함한 두타산성 일대라 하였다(「고구려의 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 1983, 47쪽).

4) 도살성의 위치에 대하여 ① 음성의 백마령설(신채호, 『조선상고사』 I, 동서문고, 1977, 270~272쪽), ② 천안설(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57쪽), ③ 충북 증평의 이성산성과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의 頭陀山城 일대로 보는 견해(민덕식, 앞의 논문, 47쪽) 등이 있다. 그런데 천안지역은 고려 태조 때 천안도독부가 설치된 곳이고, 백제 성왕 때 한강 하류 지역에 진출하는데 전략적 요지이기 때문에 신라가 이를 공취할 경우 백제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는 곳이다. 또한 신라의 화령로를 통한 북진이 청주지역을 경유한 점을 고려할 때 증평 이성산성설이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5) 이성산성에 대한 제1차 학술대회가 2011년 11월 18일에 개최되었고, 전문적인 학술 연구로는 성경용, 「증평 이성산성 출토 토기양상과 그 성격」 『호서고고학』 27, 2012, 27~65쪽이 있다.

런데 현재 진행 중인 이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곧바로 도서현의 치소나 도살성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증평지역이 인근 청주지역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삼국간의 주요 쟁패지역으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추이를 도살성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성산성의 축조 배경과 운영 실태를 통해 삼국간의 쟁패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할 예정이다.

II. 百濟의 증평지역 진출과 이성산성 축조

1. 백제의 증평지역 진출 시기

증평지역은 금강수계의 하천으로 괴산군 청안면 좌구산의 북쪽에서 발원하여 증평의 반탄을 지나 미호천에 합류하는 寶岡川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보강천 하류에는 미호평야에 연결되는 '질벌들'이라는 너른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청동기시대 이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농경이 발달한 곳이었다. 이를 입증해 주는 고고학 자료는 많지 않지만 미암리고인돌과 송정리고인돌, 석곡리 주거지,⁶⁾ 송산지구,⁷⁾ 그리고 증평읍 연탄리에서 발견된 마제석검 등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유물이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 말엽부터 철기문화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철기문화의 유입으로 철자원 개발과 철기의 제작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서북한지역의 정치적 변동으로 상당수의

6) 충북대박물관, 『증평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가락동유형 주거지 2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7)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증평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2008. 이 유적에서는 장방형 집자리 2기와 소성유구·화덕자리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유이민들이 중부 이남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동기의 제작과 관리 및 교역의 중심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辰國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부 이남지역 토착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정치·문화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러한 배경 하에서 馬韓·辰韓·弁韓의 삼한 연맹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삼한은 臣智, 邑借 등과 같은 수장층에 의해 다스려지는 70여 개의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이들 소국들은 바로 君長國家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삼한시기에 증평지역은 마한의 한 소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증천리유적이 있다. 증천리유적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주구토광묘 1기와 타날문토기가 확인되었는데 말각장방형으로 인근 청주 송절동의 주구토광묘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⁸⁾ 그밖에 이성산성 주변의 구릉지대와 대동리유물산포지 등에서 원삼국기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서 소국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국의 수장층이 삼한시기에 증평지역을 대표하는 재지세력으로 성장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 중 증평지역에 먼저 진출한 나라는 백제였다. 그러나 백제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증평지역에 진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증평지역을 통치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백제의 증평지역 진출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백제 초기의 영역확장 기사와 이성산성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먼저 백제의 증평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 多婁王 36년(AD 63)년의 기사가 주목된다. 백제가 다루왕때에 지금의 청주로 비정되는 娘子谷城에 진출하여 신라와 화의를 요청하는 기사⁹⁾가 바로 그것이다. 백제의 청주지역 진출은 증평진출과 깊은 관

8)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증평 증천리 유적 -증평~장동간 도로공사 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2006, 1~103쪽.

9) 『삼국사기』 백제본기 다루왕 36년 동 10월.

런이 있기 때문이다.¹⁰⁾ 다루왕대에 낭자곡성을 개척했다는 기사 이후에는 바로 백제와 신라가 보은으로 비정되는 蛙山城과 옥천 또는 괴산으로 비정되는 狗壤城에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일련의 기사가 있다.¹¹⁾ 이 기사는 백제가 일단 청주지역을 확보한 이후 중부 내륙교통로인 화령과 추풍령로를 따라 금강유역에 남하 진출하면서 이 지역에 이미 진출해 있던 신라 세력과 전투를 벌인 사실로 이해된다.

그런데 청주·청원지역과 증평지역에는 기원후 1세기경 백제가 이 지역을 지배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고고학적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증평 인근의 청주·청원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의거해 볼 때 원삼국시대 후기부터 4세기에 이르는 유적인 청원 상평리유적과 송대리유적, 그리고 청주 송절동유적과 봉명동의 이른 시기 유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적에서 한성백제의 것으로 판단되는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에 의거해 볼 때 청주지역에 백제적 문화요소인 삼족기와 개배, 마구류 및 환두대도 등이 출현하는 시기는 4세기 중엽 이후 청원 주성리유적과 청주 신봉동고분 단계부터로서 이때부터 청주와 청원지역이 백제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그 지방통치체제에 편입해 나가는 단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¹²⁾ 따라서 백제 다루왕대의 청주지역 진출 기사는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후대 어느

10) 증평과 청주지역은 같은 금강수계에 있고, 또 미호천 주변에 펼쳐 있는 미호평야에 연결해 있는 같은 생활권역으로 묶을 수 있다.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서쪽에 청주 정북동토성이 축조되었다면 그 북쪽 끝의 증평에는 이성산성이 축조된 것으로 대응해 볼 수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신봉동유적에서 傳淸州出土 鷄首壺, 환두대도, 삼엽형 耳飾 등의 위신재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청주지역의 수장층들이 증평지역의 수장층들보다 높은 위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수장층들은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하의 위계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1) 『삼국사기』 백제본기 다루왕 37년·39년·43년·47년·48년·49년.

12) 양기석, 『漢城百濟의 淸州地域 支配』,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 한국학중앙연구원, 185~295쪽.

시기에 이루어진 영역확대 사실이 다루왕대에 소급 정리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한성백제기의 영역확대 과정이 참고가 된다.¹³⁾ 백제의 지방지배 과정은 그 영역확대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1단계로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기사가 참고가 된다. 이 기사에 의하면 백제 온조왕대에 이미 영토를 북으로 溟河(예성강), 남으로는 熊川(안성천 또는 금강), 서로는 大海(서해), 동으로는 走壤(춘천)으로까지 뻗쳐 마한과의 경계를 정하고 끝이어 마한을 공격하여 병탄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⁴⁾ 그러나 3세기경의 사실을 전하는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는 마한의 중심세력인 目支國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¹⁵⁾ 이 기사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한강유역에 분포하는 백제 초기 무기단식 적석총의 분포 범위로 미루어 볼 때 백제 초기의 영역은 2~3세기 무렵의 사실로 볼 수 있다.¹⁶⁾

차령과 금강유역을 영유한 한성백제가 다음 단계로 노령산맥의 이북지역에 진출한 시기는 대략 4세기 전반 比流王代(304~343) 전후의 시기로 추정된다.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후 大豆山城(아산)을 쌓고 끝이어 蕩井城(온양)을 쌓아 대두성의 민호를 이주시켜 거주케 한 기사가 있다.¹⁷⁾ 다시 圓山城과 錦峴城, 古沙夫里城을 차례로 축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¹⁸⁾ 여기서 마한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지명인 대두산성, 탕정성, 원산성, 금현성, 고사부리성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당시의 백제의 강역을 대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3) 한성백제기의 영역확대 과정에 대해서는 유원재, 「백제 영역변화와 지방통치」, 『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1998, 14~23쪽을 참조할 것.

14)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8월 및 27년 4월.

15) 이때의 마한은 천안-직산에 있던 목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집단 일부로 추정하고 있다.

16) 최몽룡·권오영,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백제초기의 영역고찰」, 『천관우 선생환락기념한국사학논총』, 1985.

17)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27년 추7월 및 36년 추7월.

18)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36년 추8월.

그 중 대두산성은 아산의 영인산성에,¹⁹⁾ 탕정성은 온양,²⁰⁾ 고사부리는 정읍 고부로 각각 비정된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백제는 3~4세기 전반에 걸쳐 중서부지역에서 전북 정읍일대에까지 진출한 사실을 건국시조인 온조왕대에 일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백제 비류왕대에 김제 벽골제 축조 기사²¹⁾이다.

이와 같이 문헌상으로 볼 때 한성백제의 남부 영역확대 과정에서 청주와 증평지역에 진출하는 시기는 한성백제가 금강유역에 진출하는 3세기 중반 이후에서 벽골제가 축조되는 4세기 전반 어느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이성산성의 축조

이성산성이 언제 축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이성산성 남성의 남수문지와 성내 주거시설 및 성벽 등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 이 성이 거의 4세기대에 한정해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벽은 외측에 土壘를 쌓고 내측으로 주로 모래와 사질점토를 성토하여 덧붙이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축조공법은 정연한 판축이 아닌 유사 판축을 하였고, 일부 성벽에서는 식물체가 붙어있는 땅 표면 흙을 성토하여 이른바 부엽공법의 효과를 노리는 축조기술도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근 미호천변에 있는 청주 정북동토성이 영정주를 세워 정연하게 판축한 축성기법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축공법 이전 단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성산성의 남성이 청주 정북동토성보다 다소 빠르고 충주

19) 유원재, 「백제 탕정성 연구」 『백제논총』 3, 1992.

20) 유원재, 앞의 논문 참조.

21) 벽골제 축조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흘해니사금 21년조에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의 김제지방이 당시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 비류왕대의 사실로 이해하고 있다(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36쪽).

단금대토성이나 화성 길성리토성²²⁾ 등과 같이 백제권 지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축성된 성곽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남성의 축조연대를 추정해 주는 자료는 토기류를 비롯한 출토 유물이다. 남성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류와 파수, 시루, 어망추, 석검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남성의 남수문지 및 성내 평탄지에서 출토된 토기는 기형이 대부분 壺와 대형옹이 주를 이루면서 시루나 발, 단경호 편들이었다. 이 토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른바 '원삼국-백제 교체기' 단계의 것²³⁾들로 되어 있는 반면[사진 1] 한성백제 중앙 양식의 토기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성백제의 양식은 남문 평탄지와 성벽에서 발견된 5세기 중반의 백제토기편(뚝배기 등) 몇 점과 5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경주양식의 신라고배 등이다. 5세기 한성백제의 양식과 신라토기가 몇 점 발견되기는 하였으나[사진 2] 거의 대부분 4세기대 전반의 지역 양식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성산성 남성은 4세기 전반경에 축조되어 주로 사용된 이후 5세기 중후반에 걸쳐 제라동맹기에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의 거점성으로 백제와 신라에 의해 일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성의 경우 그 축조연대와 사용 시기를 짐작하게 하는 것은 성내 평탄지에서 발견된 주거지 4개와 구상유구, 그리고 추정 남문지 및 출토 유물들이다.²⁴⁾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장란형토기 구연부와 시루편, 완, 대형호, 대형옹류 등이 주류를 이룬다. 시기별로는 대부분은 원삼국시대 및 백제토기이다. 원삼국시대의 경질무문토기의 출토는 빈약한 편이다. 원삼국시대 유적인 4호 주거지와, 그 위에 조성된 4호 주거지에는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시기차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 남문지는 통로부 바닥과 그 위의 퇴적도에서 목

22) 충북대박물관, 『화성 길성리토성Ⅱ -화성 향남읍 요리 270-8번지 내 유적조사-』, 2011.

23) 성경용, 앞의 논문, 49~56쪽.

24) (재)증원문화재단연구원, 「증평 이성산성 북성(4차) 발굴조사 학술자문 회의자료」, 2012. 10. 19 참조.

탄층이 확인되고 있어서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경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성에서 수습된 5세기 회청색 동체편과 파수편 등 약간의 신라토기편이 발견되었다.²⁵⁾

이로 미루어 보아 이성산성은 북성의 4호주거지에서 보듯이 성이 축조되기 이전 원삼국시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4세기 전반경에 성이 축조되어 사용되었다가 5세기 중후반경까지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하여 백제와 신라의 제라동맹세력에 의해 한때 기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이성산성에 대한 몇차례의 학술조사와 관련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성산성은 백제가 노령산맥 이북지역에 까지 진출하는 4세기대 전반에 축조되었으며, 5세기 이후에도 한동안 기능을 유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사진 1. 남성 성내 평탄부 출토 토기류

25) 충청전문대학박물관, 앞의 책, 133쪽 및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증평 이성산성 북성(4차) 발굴조사 학술자문 회의자료」, 2012. 10. 19 참조.



사진 2. 신라고배편

그러면 이성산성은 어느 세력에 의해 축조되었을까? 이성산성의 축조세력은 남문에서 출토된 토기류나 성벽의 시원적인 판축 축성 기법 등을 통해 볼 때 증평지역에서 소국의 지배권을 행사하던 재지세력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세기 후반경에는 마한에서 장정을 동원하여 성곽을 축조하던 사례가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 보이고 있으며, 낙랑계 이주민들의 이입에 따른 토목기술의 보급²⁶⁾ 등으로 증평의 재지세력은 성곽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어느 정

26) 중부지방에서 낙랑계 유물이 발견되는 지역은 임진강, 한탄강유역에서 한강유역, 안성천유역을 비롯하여 영동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무중, 「考古資料를 통해 본 百濟와 樂浪의 交涉」, 『湖西考古學』 11, 2004 및 「마한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 양상」, 『낙랑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6, 284~293쪽). 충북지역에서는 충주 금릉동유적, 청주 송걸동유적, 청원 송대리유적, 제천 양평리유적 등에서 청동고리, 소동탁, 철극, 철기가 출토된 바 있다. 단순한 문물교류에 의한 것도 있지만 화성 기안리유적처럼 낙랑계 이주민들의 이입 등에 의해 선진 기술과 문물이 보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곽은 고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전쟁과 함께 방어체계로서 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지 지역의 재지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입지조건이나 계획적인 설계와 발달된 토목축조기술과 시공 능력의 확보,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 및 효율적인 노동력 편성과 관리, 방어에 필요한 시설의 배치 및 무기 체계의 발달 등의 종합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대국가와 같은 국가체에서 축성사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성산성은 한성백제와의 일정한 관련하에서²⁷⁾ 증평지역의 재지세력에 의해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백제가 이성산성을 축조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 이성산성 축조 배경은 무엇보다도 백제의 한강 중상류지역과 금강중류유역 진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백제는 3세기 중엽 마한의 한 소국인 신분고국이 대방군을 공격한 기리영 전투²⁸⁾ 이후 신분고국을 대신하여 진·변한 철교역권을 장악하고 한강 중상류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철산지로 알려진 남한강유역의 충주지역을 장악하면서 기존의 금릉동유적과 문성리유적과 관련된

27) 성곽의 입지조건이나 축조기술, 설계 및 시공 방법, 농토목용구의 제작 사용 등에서 한성백제의 일정한 지도와 기술적 도움에 의해 축조되었을 것이다.

28) 『삼국지』 권30 韓傳에 의하면 위나라가 部從事 吳林으로 하여금 대방군 관할하에 있는 진한 8국을 떼어 낙랑군에 배속시키려 하였는데, 이를 시행하던 중 吏譯의 잘못으로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臣漬沽國을 분격시켰으며 급기야 대방군 공격에 의한 한위 분쟁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방군 관할 진한 8국을 낙랑군에 이속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며, 또한 마한 북부에 위치한 臣漬沽國이 격분하여 한군현과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때의 전쟁을 주도한 주체를 백제 古爾王으로 보는 견해(천관우, 「삼국지 한진의 재검토」, 『진단학보』 41, 1976, 32~33쪽 등), 目支國으로 보는 견해(노중국,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10, 1967, 36~38쪽), 그리고 臣漬沽國으로 보는 견해(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518쪽) 등이 있다.

재지세력을 제압하고 탄금대토성과 장미산성을 축조하여 백제의 남한강유역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다. 또 하나의 방향은 중부 내륙교통로를 통해 금강의 중상류와 낙동강 상류유역에까지 진출을 도모하려 하였다. 4세기 전후로 한 시기에 철기가 출토된 천안 두정동유적·화성리유적·신평리유적, 진천 석장리유적·청원 송대리·상평리·주성리유적, 청주 봉명동·신봉동·가경동유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성백제가 이 시기에 이미 청주지역에까지 진출한 것이 확인된다.

그 남하 코스는 서울-화성-천안-공주로 가거나 또는 서울-이천-진천-청주로 이어지는 두 코스가 추정된다. 따라서 한성백제는 중부 내륙 교통로상의 전략적 거점지역에 성곽을 축조하여 지배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지배방식은 한성백제에 의한 직접 지배 방식이 아니라 거점지역의 재지세력을 통한 간접지배방식²⁹⁾이었을 것이다. 4세기대에 이르러 한성백제가 축성한 이천의 설봉산성·효양산성·설성산성, 음성의 망이산성 내성, 진천의 대모산성, 증평의 이성산성, 청주의 정북동토성 등이 이를 입증해 주는 유적이다. 증평 이성산성도 이러한 배경에서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성산성 축조 배경과 관련하여 3세기경에 괴산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와 신라 사이에 벌어졌던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다음의 전쟁 기사가 주목된다.

A-① 가을 7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의 腰車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성주 薛夫를 죽였다. 신라 왕 奈解가 노하여 伊伐滄 利音을 장수로 삼아 6부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의 沙峴城을 공격하였다. (초고왕 39년, 214)

② 가을 9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를 쳤다. 신라의 군사와 槐谷 서쪽에서 싸워 이기고 그 장수 翊宗을 죽였다. 겨울 10월에 군사

29) 이 시기에는 한성백제가 이들 거점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산의 부장리유적, 공주의 수촌리유적 등에서 보듯이 거점지역의 지배세력에게 위세품을 사여하는 방식의 간접지배방식을 관철시켜 지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를 보내 신라의 烽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고이왕 22년, 255)

③ 겨울 10월에 군사를 내서 신라를 공격하여 槐谷城을 포위하였다. (고이왕 45년, 278)

위 기사에서 백제와 신라 양군이 교전한 지역은 腰車城, 沙峴城, 烽山城, 槐谷城이다. 이들 지명의 비정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괴산과 경북지역 일대에 연결되는 교통로상에 있는 지명으로 추정된다. 즉 腰車城은 상주 요제원으로,³⁰⁾ 사현성은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³¹⁾ 봉산성은 경북 영주시로,³²⁾ 괴곡성은 괴산³³⁾으로 각각 비정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가 이미 3세기 전후로 한 시기에 소백산맥의 영로를 통하는 교통로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와 신라 양군은 경북 영주 또는 상주에서 소백산맥의 嶺路인 竹嶺이나 鷄立嶺을 넘어 괴산지역에 이르기까지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것이다. 이 기사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소백산맥 일대에 분포하고 있었던 여러 소국들 간의 교전 사실이 후대에 백제와 신라 양국의 사실로 정리되어 기록에 남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일련의 전투로 인해 괴산에 인접한 증평지역의 재지세력은 커다란 군사적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한성백제는 금강유역과 낙동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종래 루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증평과 청주지역의 재지세력을 보다 통제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증평과 청주지역은 남방 진출을 위한 군사상 거점지역으로 중요시되었고, 아울러 평화시에 신라나 가야와 교류를 위한 중부 내륙교통로상의 거점지역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증평의 이성산성이 한성백제와의 일정한 관

30)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27쪽.

31) 괴산군지편찬위원회, 『괴산군지』, 1969, 38쪽.

32) 이병도, 앞의 책, 368쪽.

33) 이병도, 앞의 책, 370쪽.

계속에서 재지세력에 의해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高句麗의 남진과 道西縣 설치

삼국 중 백제에 이어 증평지역에 진출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고구려의 증평지역 진출은 475년 백제 왕도 한성 공격에서 비롯되었다. 백제 蓋鹵王이 472년 북위와의 교섭을 통해 고구려 공격에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개로왕의 청병외교는 도리어 고구려를 크게 자극하여 백제 공격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475년 고구려의 한성 공격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 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를 백제의 외교적 고립과 백제 내부 분열의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였다.³⁴⁾ 고구려가 472년 백제의 대북위 교섭 이후 대중외교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백제 침공에 앞서 야기될 수 있는 대외 문제에 대해 고구려의 입장을 설득하고 나아가 백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내부적으로 백제 공격의 준비가 갖추어지고, 또한 국제적 환경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판단된 475년 2월과 7월에 두 차례 사신을 파견한 다음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백제를 공격한 것이다. 장수왕은 간첩으로 백제에 파견된 道琳의 보고를 듣고 백제 공격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고구려의 백제 공격 지점은 다른 지역보다도 백제를 단기간에 타격을 입히는데 효과가 큰 왕도 한성을 목표로 하여 전광석화처럼 전개되었다.

장수왕이 이끄는 3만의 고구려군이 먼저 북성인 풍납토성을 화공책으로 공략하여 이를 초토화시켰고, 이어 남성인 몽촌토성을 공격하자 개로왕은 도망치다가 고구려군에게 사로잡혀 阿且城으로 끌려가 살해되었다. 이때 고구려는 개로왕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살해

34) 김수태, 「백제 개로왕대의 대고구려전」,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235~240쪽.

한 다음에 백제 주민 8천 명을 포로로 삼고 곧바로 철수하였다. 고구려 주력부대가 일단 철수는 하였지만, 이후 한성에는 그 잔류부대가 도성 중의 하나인 남성 몽촌토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를 입증해 주는 자료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들과 관련 유적이다. 이 자료를 통해 한성에 잔류한 고구려 군대는 군사방어기능을 갖춘 몽촌토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둔하였음이 확인되었다.³⁵⁾ 몽촌토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은 한성지역의 치안 유지는 물론 남하하는 고구려군의 보급과 업무연락을 담당하던 거점 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서 백제는 한강유역 일대를 고구려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文周王은 신라의 원병 1만 명을 거느리고 귀환하였으나 하는 수 없이 왕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475년부터 551년까지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전개하여 한강유역을 포함하여 그 이남으로 영토를 크게 확대하였다. 서쪽으로는 아산만에서 직산(蛇山), 진천(今勿奴), 증평(道西), 괴산(仍斤內), 음성(仍忽), 연풍(上茅), 충주(國原) 등지를 비롯하여 소백산맥의 영로를 넘어 경상북도의 동북부 지역 모두가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다. 아산만에서 영일만까지 한때 고구려 영역인 것으로 주장한 『삼국사기』 지리지4 기사가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한성과 그 이남지역을 지배하는 통치 방식은 한성과 국원성 등 중심 거점성에는 守事와 같은 고구려 관료를 파견하고, 여타 지역은 백제계 재지세력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각 지역을 지배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성골이나 월평산성과 같은 최전방에는 소규모 병력으로 거점을 확보하면서 유사시 기마병에 의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보루 위주의 공격형 관방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道西縣이 설치되었

35) 최종택,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연구」, 『선사와 고대』 24, 2006, 35쪽.

으며 백제의 영역인 청주지역과 신라의 영역인 문의지역에 인접해 있는 삼국간의 첨예한 쟁패지역이 되었다. 고구려가 동맹관계에 있던 백제와 신라의 세력을 가르면서 금강중상류와 낙동강유역에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부 내륙교통로인 추풍령로와 화령로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고구려가 이 루트를 통해 남진을 하기 위해서는 6세기 중반 신라의 북진을 위한 대고구려 공격루트³⁶⁾의 역코스인 진천(대모산성)→증평(두타산성과 이성산성)→청원(북이면 부연리의 낭비성→노고성→구라산성→낭성산성)→보은(산성리의 함림산성→삼년산성)의 공격 루트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5세기 후반에 바로 이 루트에서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여 백제와 신라의 동맹세력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면에서 고구려 영유기의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남진을 위한 삼국간의 치열한 쟁패지역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도서현의 이성산성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증평지역을 통해 남하한 사실은 다음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는 고구려의 한성 함락 직후 청원과 대전지역에까지 고구려가 남하해 온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5세기말 위의 진천에서 보은지역에 이르는 고구려의 남하 루트에 대응하여 백제와 신라 동맹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고구려군은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군을 추격하여 한때 금강 중류 일대에까지 진출한 사실이 청원 부강 남성골유적과 대전 월평동유적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475년 고구려의 한강유역 확보 이후 여세를 몰아 남하를 시도하였다. 고구려는 문의지역에 세력 거점을 둔 신라와 강외면 일대에 세력을 포진한 백제의 틈바구니인 청원 부강지역 남성골에 성곽을 쌓고³⁷⁾ 금강 건너 위치한 백제의 왕도

36)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합집, 1999, 366~375쪽.

웅진을 압박하는 형세를 취하면서, 일부는 다시 금강을 건너 유성의 월평동산성에까지 진출한 것³⁸⁾으로 추정된다. 이때 고구려는 남한강유역의 전략적 요충인 충주(국원성)에서 출발하여 증평을 거쳐 미호천을 따라 부강의 남성골유적과 대진의 월평동산성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증평지역에 미호천을 통한 금강중류 지역에 진출하는데 최전방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5세기 말에 이르면 고구려의 남하로 인해 증평지역과 그 주변지역이 다시 한번 삼국 간의 세력 각축장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한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① 7월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북쪽 변경에 침입하므로 신라는 백제와 함께 힘을 합하여 母山城 밑에서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6년, 484)

② 가을 7월에 고구려와 신라가 薩水 별관에서 싸웠는데, 신라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犬牙城을 지키자 고구려가 이를 포위하였다. 왕은 군사 3천 명을 보내 구원하여 포위를 풀어주었다. (앞의 책, 동성왕 16년, 494)

③ 가을 8월에 고구려가 雉壤城을 포위해 오자 왕은 사신을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이 장군 德智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물러나 돌아갔다. (앞의 책, 동성왕 17년, 495)

④ 이 해 紀生磐宿禰가 任那를 점거하고 고구려와 교통하였으며, 서쪽에서 장차 삼한의 왕 노릇을 하려고 관부를 정비하고 스스로 神璽이라고 칭하였다. 임나의 左魯·那奇他甲背 등의 계책을

37) 차용걸 외, 『청원 남성곡 고구려유적』, 충북대박물관 조사보고 제104책, 2004 및 「청원 IC~부용간 도로공사구간내 청원 부강리 남성곡 유적 2차 발굴조사」, 중원문화재단연구원, 2006.

38)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박물관, 『대전 월평동유적』, 1999 ; 충청문화재단연구원, 『대전 월평동산성』, 2003.

써서 백제의 適莫爾解를 爾林에서 죽였다[爾林은 고구려의 땅이다]. 帶山城을 쌓아 동쪽길을 막고 지켰다. 군량을 운반하는 나무를 끊어 (백제)의 군대가 굶주려 고생하도록 하였다. 백제왕이 크게 노하여 領軍 古爾解·內頭 莫古解 등을 보내어 무리를 거느리고 帶山城에 나아가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紀生磐宿禰는 군대를 내보내 맞아줬는데, 담력이 더욱 왕성하여 향하는 곳마다 모두 깨뜨렸다. 한 사람이 백사람을 감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얼마 후 군대의 힘이 다하니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任那로부터 (왜)에 돌아왔다. 이로 인해 백제국이 左魯·那奇他甲背 등 300여 명을 죽였다. (『일본서기』 권15, 현종기 3년)

위 기사는 5세기 말 고구려와 제라동맹군이 충북지역에서 전투를 벌인 기사이다. 먼저 母山城은 신라의 북변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B-①), 이곳에서 신라가 백제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격퇴한 일이 있었다. 母山城은 충북 진천의 대모산성으로 비정되는데, 이곳에서 고구려의 항아리 1점이 출토된 바 있다.³⁹⁾ 이 토기는 표면이 마연된 흑색토기로 한강유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토기와 기형상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의 薩水原은 『삼국사기』 권34, 잡지 지리1에 의하면 신라 상주 삼년산군에 속한 薩買縣으로 지금의 청원 미원일대로 비정된다.⁴⁰⁾ 犬牙城은 경북 문경 부근으로 보는 설⁴¹⁾이 있으나, 당시 고구려와 제라동맹군이 충북 청원 미원-보은 선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보은 일대로 추정된다.⁴²⁾ 雉壤城은

39)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진천대모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40)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2001, 35쪽. 신라때 살매현은 현재 충북 괴산군 청천면으로 비정되고 있으나, 그 주변에 고대 산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라군의 전초기지가 보은 삼년산성에 있다고 보았을 때 교통로상 적당치 않다.

41) 이병도, 앞의 책, 1977, 400쪽.

42) 당시 신라와 고구려간의 전투가 보은 삼년산성을 모기지로 하여 보은-청원-진천선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견아성은 보은 창리의 주성산성이나 산성리의 함림산성에 비정될 수 있다(양기석, 앞의 논문, 2001, 35쪽).

근초고왕 24년(369)조에 의거해 볼 때 황해도 白川 지역과 동일한 곳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의 전황을 고려해 볼 때 괴산 일대로 추정된다. 이는 475년 이후 황해도 배천지역 주민들이 전란을 피해 괴산지역에 이주하면서 동일한 지명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⁴³⁾

다음은 『일본서기』 권15, 현종기 3년에 나오는 爾林에 대한 지명 비정문제이다. 위 기사는 紀生磐宿禰가 任那에 응거하여 고구려와 교통하고 삼한의 왕이 되기 위해 爾林에 있는 백제의 適莫爾解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백제가 이를 토벌하기 위해 領軍 古爾解 등을 보내어 紀生磐宿禰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左魯·那奇他甲背 등 300여 명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실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⁴⁴⁾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나오는 那奇他甲背가 『일본서기』 흙명기 5년 2월조 분주에 인용된 『百濟本記』의 那干陀甲背와 동일 인물이

43) 노중국,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701쪽.

44) 이 사건에 대한 최근의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김현구, 『임나일본부연구』, 일조각, 1993; 李鎔賢, 「五世紀におけるの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顯宗三年紀是歲條の檢討」, 『東797の古代文化』 90, 1997 冬;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등이 있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서기』기사의 기년대로 487년으로 보는 설 이외에 529~530년으로 수정하여 보는 설(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1983, 223~224쪽)이 있다.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① 紀生磐宿禰의 왜에 대한 반역·백제 침입사건(今西龍,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1, 135~137쪽), ② 대산성 쟁탈사건(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5, 106쪽), ③ 가야의 백제군 축출사건(大山誠一,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中)」, 『古代文化』 32-11, 1980, 31~33쪽; 연민수, 앞의 책, 1998, 172쪽), ④ 백제장군의 반란설(千寬宇, 『韓國史の潮流』, 『古代日本と朝鮮の基本問題』, 學生社, 1974, 119쪽)이 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발생 시점이 다르겠지만, 백제가 대가야와 함께 공조 관계를 통해 고구려와 대립하던 시기의 것으로 파악한다면 487년이라는 절대 연도보다도 백제 동성왕대(479~501)에 고구려와의 접경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싶다.

며 성왕대에 활동한 河內直의 선조로 나오는 점으로 보아 487년 전후로 한 동성왕대(479~501)로 보인다. 종래 爾林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진라북도 일대설⁴⁵⁾과 충남 예산 대흥설⁴⁶⁾ 등이 제기되었으나, 최근에는 충북 음성 또는 괴산설⁴⁷⁾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爾林이 당시 고구려 영토로서 백제군이 한 때 주둔하고 있었던 점, 이립과 가까운 곳에 임나[가야]가 축성한 帶山城이 백제가 동쪽으로 통하는 길목[東道]과 나무를 이용하여 건너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⁴⁸⁾ 그리고 그 너머 백제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의 무대는 480년대 후반 당시 고구려와 백제 간에 대치하고 있었던 접경지역에서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480대 이후 고구려와 제라동맹군 간의 교전지점을 고려해 볼 때 위의 조건에 부합된 곳은 충북지역이다. 음성이나 괴산설은 웅진도읍기의 왕도를 기준으로 볼 때 모두 동북방에 치우쳐 있고, 또한 그 옛 지명에 해당하는 仍忽, 仍斤內郡, 道薩城 등이 과연 음운학적으로 이립과 대산성에 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생긴다. 오히려 당시의 교쟁 지역과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청원 일대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⁹⁾ 청

45) 진라북도 일대설에는 ① 김제설(末松保和, 『任那興亡史研究』, 吉川弘文館, 1956, 76~77쪽), ② 임실설(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地名考』, 『雜攷』 7 下卷, 1937, 25~27쪽; 연민수, 「6세기 전반 가야제국을 둘러싼 백제·신라의 동향-소위 '임나일본부설'의 구명을 위한 서설-」, 『신라문화』 7, 1990, 106~112쪽 등), ③ 진안설(곽장근,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1999, 266~273쪽) 등이 있다.

46) 山尾幸久, 앞의 책, 1983, 223~224쪽;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245~246쪽.

47) 이용현, 앞의 논문, 1997, 81~83쪽; 김태식, 앞의 논문, 2006, 136~140쪽.

48) 東道는 지리적으로 볼 때 신라의 북진로 중 백제의 동쪽인 화령과 추풍로가 만나는 보은-문의의 대백제루트와 보은-청원 낭성-중평 이성산성-진천 대모산성으로 이어지는 대고구려루트로 볼 수 있고(양기석, 앞의 논문, 1999, 366~370쪽), 津은 금강과 미호천을 연결하는 백제의 군량 보급로일 가능성이 있다.

49) 양기석,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

원 부용면일대는 금강 지류인 미호천이 관통해 흐르고 있으며, 또한 고구려유적과 백제, 신라 및 가야유적과 유물이 함께 발견되는 곳이다.

이처럼 5세기 말 고구려와 제라 동맹국간의 전투지점은 충북 진천(母山城) - 청원 미원(薩水原) - 보은 내북면(犬牙城) 선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당시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금강중류지역 진출의 전략적인 전초기지로서 삼국 간의 치열한 쟁패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IV. 신라의 증평지역 지배

신라가 증평지역에 진출한 것은 550년 전후의 일이었다. 신라의 증평지역 진출은 5세기 중반부터 고구려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자립화를 위한 북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5세기 후반에는 신라는 죽령로와 계림령로, 그리고 화령과 추풍령로의 세 방향으로 북진을 적극 추진하면서 고구려를 소백산맥 이북으로 구축해 나갔다. 신라의 북진루트 중에서 죽령로와 계림령로는 고구려와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551년까지 한동안 대치 상태를 유지했던 반면 화령과 추풍령로를 통한 북진은 계속 추진되어 금강상류 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470년 삼년산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축조된 신라북진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삼년산성 축조를 계기로 하여 상주와 소백산맥을 넘어 영동, 옥천, 보은 등 금강상류 지역의 전략적 거점에 성곽을 축조함으로써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하는 한편 산성 중심의 지배거점을 확보하고 강고하게 잔존해 오던 재지세력들을 편제하여 군사적 성격을 가진 지방 행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간 것이다.

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55~56쪽.

이처럼 신라가 470년 보은에 삼년산성을 축조하여 추풍령로를 통한 북진의 전진기지를 확보한 이후 보은에서 청주 간을 연결하는 통로 주변의 신라유적을 통해 볼 때 신라의 북진로는 크게 두 루트로 북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⁰⁾ 하나는 對百濟 方면의 루트로서, 5세기 후반 보은(삼년산성)→수리티(蘆嶺)→회인(매곡산성과 호점산성)→먹티(墨嶺)→청원 문의(양성산성과 미천리고분군) 지역에 진출하여 금강상류 서안 지역을 확보한 것이다. 또 하나는 對高句麗 方면의 루트로서, 보은 지역인 삼년산성→보은읍 산성리의 함림산성→내북면 창리의 주성산성→청원 낭성면 성대리의 낭성산성→청원 북일면 초정리의 구라산성(구녀산성)에 진출하여 청원 북이면 부연리의 낭비성과 증평 이성산성과 두타산성 등에 있는 고구려와 대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5세기 후반에 추풍령로 方면에서 신라의 북쪽 경계인 모산성(진천) - 살수원(청원 미원 일대) - 견아성(보은)의 선에서 신라와 고구려 간의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진천에서 보은 사이의 충북지방은 아직 신라가 이 지역을 확고히 영유하지 못한 채 정세 여하에 따라 일진일퇴하는 형국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구려가 영유한 증평지역은 늦어도 6세기 전반경까지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대치하는 첨예한 교쟁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6세기 초 권력기반 강화와 대내적 체제 정비로 인하여 추풍령로를 통한 북진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나, 525년 상주에 지방관인 사벌주군주가 파견됨으로써 지배영역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북진을 다시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6세기 중반 진흥왕대에 이르러서는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5세기 후반과 같은 고구려의 침입에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복원하였으나, 점차 실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대외관계를 적절히 구사해 나갔던 것이다. 다음의 550년 신라의 도살성과 금현성을 공취사건은 신라의 새로운 외교양태를

50) 양기석, 앞의 논문, 1999, 370~375쪽.

보여주는 것으로 신라의 증평지역 진출을 의미한다.

C-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道蔭城을 공취하자 3월에 고구려는 백제의 金峴城을 함락시켰다. 왕은 양국이 싸움에 지친 기회를 타서 이찬 異斯夫에게 군사를 주어 이를 공격케 하니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 두 성을 공취한 다음 성을 증축하고 천여 명의 군사를 머무르게 하여 이를 지키게 하였다(『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11년).

위 기사는 백제가 먼저 고구려의 道蔭城을 공취하자 이에 맞서 고구려는 백제의 金峴城을 함락시켰는데 이처럼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가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려 지친 틈을 타 신라 진흥왕이 異斯夫를 시켜 이 두 성을 공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고구려의 도살성과 백제의 금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고구려의 도살성을 증평의 이성산성에,⁵¹⁾ 그리고 백제의 금현성을 충남 연기군 전의면과 전동면의 경계에 있는 金城山城으로⁵²⁾ 비정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 두 성을 모조리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550년경 신라는 이미 도살성과 금현성에 진출하면서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던 국원지역을 측면 배후에서 압박하는 형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제라동맹군이 총공세를 전개하여 북진을 단행한 551년 이전에 신라가 550년 도살성과 금현성의 공취를

51) 도살성의 위치에 대하여 주) 4를 참조.

52) 金峴城의 위치에 대해 ① 충남 연기군 전의의 金城山, 金伊山城說(이병도, 앞의 책, 57쪽), ② 고구려때 今勿奴郡으로 보는 鎮川說(민덕식, 앞의 논문, 47쪽) 등이 있으나, 진천은 6세기 중반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영역으로 보는 견해는 적당치 않다. 연기군 전동면의 金城山城은 전의에서 공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금성산(424m)에 있는 석축산성으로 백제계 토기편과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는데, 증평에서 청원 옥산을 거쳐 금강의 한 지류인 조천변을 따라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그 인근 청원 부강 남성골에는 고구려유적이 위치하고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가 대치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계기로 하여 북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어 551년 신라와 백제는 여세를 몰아 북진을 단행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의 16군의 땅을 공취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대내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벌어졌고, 대외적으로 서북면에서 돌궐의 군사적 압력이 고조되어⁵³⁾ 이들 나제동맹군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때 백제는 한강하류의 6군의 땅을, 신라는 10군의 땅을 각각 공취하였다. 『삼국사기』 진흥왕 12년(551)과 居柒夫傳에 의하면 나제동맹군이 북진을 할 때 거칠부를 비롯한 8명의 장군이 거느리는 신라군이 ‘竹嶺 이북 高峴 이남’의 10군을 고구려로부터 공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551년 정월 신라 진흥왕은 開國 연호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가지려 하였다. 이는 그동안 왕태후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⁵⁴⁾ 이는 또한 대내적으로 異斯夫·居柒夫 등 비지증왕계 세력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 왕권의 안정을 얻게 되었고,⁵⁵⁾ 대외적으로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인 국원의 확보를 통해 장차 삼국제패의 관건이 되는 한강하류 유역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함축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증평지역은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증평지역은 신라의 한강유역 확보와 신주 설치 등으로 그 영역이 한강유역으로 북상하게 되자 5세기대와 같은 중부 내륙지역의 군사적 요충으로서의 역할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7세기 통일전쟁기에 들어서면서 신라와 백제 간의 한강유역 확보를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길목에 위치한 괴산 假岑城⁵⁶⁾과 증평 도살성 등에서 전투가 벌어진 사실이 다음의 『

53)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의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36~38쪽.

54) 이병도, 「진흥대왕의 위업」,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669쪽.

55) 노용필, 「신라 진흥왕대 大等의 분화와 그 정치적 배경」, 『역사학보』 127, 1990, 31~32쪽.

56) 가삼성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33년 10월, 50년 2월 및 권47

삼국사기』 기사에 실려져 있다.

D-① 10월 백제군이 쳐들어 와서 가잠성을 100일 동안 포위함으로써 현령 讚德이 굳게 지키다가 힘이 다하여 죽으니 성도 따라서 함락되었다. (진평왕 33년, 611)

② 북한산주의 군주 邊品이 가잠성을 수복하려고 군대를 내어 싸울 때 玄論이 종군하여 적진에 들어가 힘껏 싸우다가 죽으니, 해론은 곧 찬독의 아들이었다. (진평왕 40년, 618)

③ 2월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가잠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무왕 29년, 628)

④ 비령자는 고향과 족성을 알 수 없다. 진덕왕 원년(647)에 백제가 많은 병력을 이끌고 무산, 감물, 동잠 등의 성을 공격해 오니 유신이 보기병 1만을 거느리고 막았는데, - - (비령자)는 적진에 돌격해 들어가 싸우다가 죽었다. (열전7, 비령자)

⑤ 가을 8월에 왕은 左將 殷相을 보내 정에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石吐城 등 7개의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 장군 庾信 · 陳春 · 天存 · 竹旨 등이 이를 맞아 치자, [은상은] 이롭지 못하므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道薩城 아래에 진을 치고 다시 싸웠으나 우리 군사가 패배하였다. (의자왕 9년, 649)

위 기사는 7세기 전반 통일전쟁기에 신라와 백제 간에 전투가 벌어진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신라와 백제 양군 간의 전투 지점 중 충북지역과 관련된 지명은 가잠성, 도살성, 석토성 등이 있다. 가잠성은 괴산에, 도살성은 증평에, 석토성은 진천 문안산

열전 奚論傳과 金舍胤傳에 나온다. 해론전에는 가잠성주 讚德이 느티나무 [槐樹]를 받고 죽었다고 하여 무열왕이 그곳을 槐山으로 고쳤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어(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괴산군, 1991) 괴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井上秀雄 譯註, 1980). 이와는 달리 괴산군의 옛 지명인 仍斤內와 가잠이 음운상 통하지 않아 이를 부정하고 신라 한주 介山郡의 옛 지명인 皆次山郡과 같은 현재의 경기도 安城郡 竹山面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金泰植,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1997, 77쪽). 여기서는 괴산설을 취하기로 한다.

성에⁵⁷⁾ 각각 비정된다. 이 시기에 증평지역은 5세기와 같은 중부 내륙의 요충지는 아니었지만 한강유역으로 가는 중간 거점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성산성을 포함한 증평지역이 6세기 중반부터 고구려에 이어 신라에 의해 영유되었지만 5세기대와 같은 전략적 요충으로서의 위상은 다소 약화되었다. 삼국 통일 후에는 신라의 都西縣이 되어 黑壤郡 관할하의 군현으로 편성되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증평 이성산성의 축조 시기와 배경, 그리고 5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삼국이 증평을 장악하게 된 역사적 추이를 통해 증평 이성산성의 역사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 중 증평지역에 먼저 진출한 나라는 백제였다. 백제가 증평지역에 진출한 시기는 낭자곡성을 개척하였다는 다루왕대의 기사와 백제의 단계별 영역화 과정을 재구성해 볼 때 3세기 중반에서 벽골제가 축조되는 4세기 전반 어느 시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성산성의 축조시기는 최근 발굴조사과정에서 나오는 남성과 북성 성벽의 축조방법과 성내에서 출토된 토기류 등을 검토해 볼 때 백제가 노령산맥 이북지역에까지 진출하는 4세기대 전반에 축조되어 5세기 이후에도 한동안 기능을 유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성산성은 4세기 전후로 철기가 보급 확산되고 한성백제가 한강중하류 유역과 중부 내륙교통로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거점지역에 있는 재지세력을 제압하여 축성을 한데서 그 축조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또한 3세기경 소백산맥 영로를 통한 백제와 신라간의 일련의 전투에 대비하여 증평지역에서 성장해 온 재지세력이 한성백제의

57) 민덕식, 앞의 논문, 1983, 52쪽.

일정한 관련속에서 축조한 것으로 보았다.

그 이후 475년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함락시켜 한강유역을 확보하면서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영유하에 놓이게 되었고 도서현이 고구려의 증평지배를 실현하는 치소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고구려와 제라 동맹국은 충북 진천(母山城) - 청원 미원(薩水原) - 보은 내북면(犬牙城) 선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당시 증평지역은 고구려의 금강중류지역 진출의 전략적 인 전초기지로서 삼국간의 치열한 쟁패지역인 것으로 보았다.

이어 신라가 증평지역에 진출한 것은 550년 전후의 일이었다. 신라의 증평지역 진출은 550년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도살성과 금현성을 차지하면서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신라는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던 증평지역과 미호천변의 금현성을 함께 장악함으로써 한강유역 확보를 위한 북진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7세기 통일전쟁기에 들어서면서 증평지역은 5세기대와 같은 중부 내륙의 요충지는 아니었지만 한강유역으로 가는 중간 거점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논문접수:2012.10.29, 심사시작:2012.11.25, 심사완료:2012.12.12]

주제어 : 이성산성, 백제, 고구려, 신라, 도서현, 도살성, 금현성

【參考文獻】

-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박물관, 『대전 월평동유적』, 1999.
- 괴산군지편찬위원회, 『괴산군지』, 1969.
- 충북대박물관, 『화성 길성리토성Ⅱ-화성 향남읍 요리 270-8번지 내 유적조사-』, 2011.
-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진천대모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6.
- 충청문화재단연구원, 『대전 월평동산성』, 2003.
- 충청전문대학박물관·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증평 이성산성』, 1997.
- (재)증원문화재단연구원·증평군, 『증평 이성산성 I -남성 남수문지-』, 2011.
- _____, 『증평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완료약보고서-』, 2011. 5.
- _____, 「증평 이성산성 북성(4차) 발굴조사학술자문 회의자료」, 2012. 10. 19.
- _____, 『증평 증천리 유적-증평~장동간 도로공사 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2006.
- 차용걸 외, 『청원 남성곡 고구려유적』, 충북대박물관 조사보고 제 104 책, 2004.
- _____, 「청원IC~부용간 도로공사구간내 청원 부강리 남성곡 유적 2차 발굴조사」, 증원문화재단연구원, 2006.
- 김무중, 「考古資料를 통해 본 百濟와 樂浪의 交涉」, 『湖西考古學』 11, 2004: 「마한지역 낙랑계 유물의 전개 양상」, 『낙랑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6.
- 김수태, 「백제 개로왕대의 대고구려전」,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 노용필, 「신라 진흥왕대 大等の 분화와 그 정치적 배경」, 『역사학보』 127, 1990.
-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의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민덕식, 「고구려의 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 1983.

백영중·조인규, 「증평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호서지역 문화 유적발굴 성과』, 호서고고학회, 2011.

성정용, 「증평 이성산성 출토 토기양상과 그 성격」, 『호서고고학』 27, 2012.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합집, 1999;

_____,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2001.

_____,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유원재, 「백제 영역변화와 지방통치」, 『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1998.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李鎔賢, 「五世紀におけるの加耶の高句麗接近と挫折-顯宗三年紀是歲條の検討」, 『東アジアの古代文化』 90, 1997 冬.

최몽룡·권오영,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백제초기의 영역고찰」, 『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 1985.

최종택,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연구」, 『선사와 고대』 24, 2006.

<ABSTRACT>

The Three Kingdoms' Advancement to
Jeungpyung and Eesung Fortress

Yang, Gi-Seok

This thesis examines the historicity of Jeungpyung Eesung Fortress through the inquiry of its established period, historical background in its foundation, and transition of its possessors which had changed among the Three Kingdoms (Koguryo, Baekjae, Shilla) since 5th century to 7th century.

Baekjae debouched to Jeungpyung earlier than the other two countries. It is assumed that Baekjae expanded its territory to Jeungpyung from the mid-3rd century to the early 4th century when Byukgoljae was founded.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wall and earthen vessels unearthed in recent excavation of Namsung and Buksung, Eesung Fortress seems to be constructed in early 4th century when Baekjae advanced to the northern Nohryung Mountains, and it presumably functioned some time after 5th century. While Hansung Baekjae expanded its territory through the middle-lower Han River area and the mid-inland traffic route, this Fortress seems to be built by the residents grown in Jeungpyung area with specific affiliations with Hansung Baekjae to prepare a series of battle against Shilla devouching through Sobaek Montains trails.

In 475 when Koguryo took Hansung of Baekjae and occupied the Han River area, Jeungpyung was seized by Koguryo; and Doseohyun functioned as a ruling institution for Koguryo. To consider that Koguryo and Baekjae-Silla Alliance seesawed to and fro against each other in Chungbook Jinchoen, Chungwon Miwon, and Boeun Naebookmyun, Jeungpyung in those days was the center of severe battles as an advanced base for the debouchment to mid-Kuem River area.

Then it is about 550 when Silla advanced to Jeunpyung and seized Dosalsung and Keumhyunsung from both Baekjae and Koguryo. Based on the achievement, Silla occupied both Jeungpyung area which was dominated by Koguryo, and Keumhyunsung near Miho River, which let Silla put the plan to conquer the North including Han River area into action. In 7th century, the Unification Period of Silla, Jeungpyung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a military strategic point of stopover to Han River area, if not as much essential as it had been in 5th century.

Keywords : Eesung Fortress, Baekjae, Koguryo, Shilla, Doseohyun, Dosalsung, Keumhyunsung.